

SNS서 쏟아낸 말, 잊혀질 권리를許한다

차세대 SNS '유리버스' 네티즌에 인기몰이

대화 내용, 서버에 저장 안되고 순간 삭제기능 구현 개인행성 꾸며 소통...인맥 탐험·채팅 등 기능 다양

“내가 실수로 뱉었던 말들을 주워 담을 수 있다고?”

검찰이 최근 인터넷공간에 대한 감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보안과 제어 권한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반감이 커진 사회 관계망(SNS) 사용자들 또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찾아 나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국내 네티즌 사이에서 차세대 SNS '유리버스'(Uiverse)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유리버스는 이용자 간 대화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걸려온 내용을 삭제하는 순간, 상대방도 더 이상 대화내용을 볼 수가 없다. 폭탄 메일처럼 일정

시간 이후에 사라지는 기능도 구현했다. 유명인들이 기존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유리버스를 이용하면 '훗김'에 뱉은 말과 실수로 올라간 사진을 삭제버튼을 눌러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

3차원 우주로 관계를 표현하는 유리버스는 개인행성을 꾸며 친구들과 대화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신개념 SNS다. 인맥 탐험과 낯씨, 채팅, 다이어리, 매거진, 투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유리버스는 전세계 사람들은 물론 지역 친화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소통공간을 3차원 우주공간으로 바라봤다. 가까운 친구와 영향력이 강한 친구를 행성의 크기와 거리

로 표현했으며, 내 인간관계를 우주로 표현한 지도와 별자리는 한눈에 속 들어온다.

특히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자신들의 고유한 이야기를 감성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SNS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가능성을 본 광주시는 최근 유리버스를 이용해 골목상권 살리기, 내부 소통혁신 시범사업 등을 협의 중에 있다.

모바일 버전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현재 앱을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웹 버전은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유리버스 서비스를 개발한 광렬희 대표는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내가 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차세대 SNS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잊혀질 권리’를 구현해 사용자들로부터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광 대표는 광주과학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유리버스를 창업했다.

/임동룡기자exian@



단통법 문답풀이

요금제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최대 35만원

부가서비스 사용강제 '원천무효'...이통사 홈페이지·대리점서 정보 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다.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같은 단말기를 같은 날 사더라도 구입 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몇 배씩 차이가 날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존재해 왔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담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취지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현재 27만원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마다 정하게 되며, 최초 상한은 30만원이다. 법 시행 이후 이런 지원금이 공시돼 소비자는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지원금을 미끼로 한 고가 요금제 가입, 부가서비스 사용 강제가 원천무효이므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이나 지원금이 같나. 또 단말기가 동일하면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나.

▲그렇다. 단말기나 요금제가 같은 조건이라면 소비자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경우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동사는 나이나 가입 지역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없다.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대리점·판매점에서 동일한 지원금을 받나.

▲그렇지는 않다.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이동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더 줄 수 있으므로 대리점·판매점에 따라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 규모는 다를 수 있다.

-모든 단말기에 상한이 적용되나.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상한액 관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말기 색상이나 통신사별 모델번호 또는 출시일이 다르더라도 최초 출시일을 기준으로 15개월을 계산한다. 다만, 메모리(용량)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단말기로 취급해 출시일을 계산한다.

-지원금, 휴대폰 가격 등의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

▲이동3사 홈페이지와 전국 대리점·판매점에서 모든 단말기별 가격과 지원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화면과 웹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공시된 지원금은 최소 7일간 동일하게 유지해야 된다. 지원금 지급기준은 개통 시점이 아니라 계약시점이다. 이용자가 이동사별 지원금 공시 내용을 한눈에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단말기 종류가 달라도 요금제가 같으면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나.

▲이동사는 기본적으로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야 하지만, 이동사로 하여금 단말기 종류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급을 엄격하게 제약할 경우, 영업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우려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수준에서의 지원금 차별은 가능하다.

-중간에 요금제 변경시 불이익이 있나.

▲요금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있다. 이용자는 당초에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요금제와 변경 요금제의 지원금 차액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한다. 즉, 저가에서 고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만큼 더 받고, 고가에서 저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연합뉴스

'외산폰'의 공습

中 화웨이·日 엑스페리아Z3 등 국내사와 가격·사양 경쟁

'외산폰의 무덤'이라 불리던 국내 시장에 다시 외산 스마트폰들의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화웨이가 지난 29일 스마트폰 X3의 국내 시장 출시를 공식화하면서 국내에 진출한 외산 스마트폰 업체는 애플과 소니, 화웨이로 셋이 됐다.

소니는 지난 5월 엑스페리아Z2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엑스페리아Z3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엑스페리아Z2는 글로벌 출시일보다 두 달여 늦게 국내에 들어왔지만 엑스페리아Z3는 글로벌 출시일에 맞춰 한국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2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3위에 오른 화웨이 역시 국내 제조사의 최고급 스마트폰과 사양 경쟁을 벌여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X3를 오랜 준비 끝에 선보인다.

이들 두 업체의 공통점은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비)'를 앞세웠다는 점이다. 소니는 최고급 제품이 엑스페리아Z3를 80만원 대에 선보이는 한편, 다른 사양은 비슷하고 화면 크기만 상대적으로 작은 엑스페리아Z3 콤팩트를 50만원 안팎에 내놓아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화웨이 역시 X3의 출고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대략 50만원 안팎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렇게 되면 최고급 제품의 출고가를 100만

원 가까이 책정하고, 버금가는 제품의 출고가를 80만~90만원 선으로 잡는 국내 제조사와는 가격 경쟁을 벌일 만한 상황이다.

특히 소니는 엑스페리아Z3 제품군을 공개(가정제 단말기)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다음달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맞물려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대화면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4.7인치와 5.5인치 아이폰을 내놓을 예정인 애플까지 가세하면 국내 시장을 무대로 국내 제조사와 해외 제조사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중국산 '화웨이'

남한 노총각과 북한 꽃미녀의
예측불허 결혼일기

남남남 남남남 남남남
북북북 북북북 북북북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박수홍 ♥ 박수애 양준혁 ♥ 김은아

박수
커를

에정통일!

양준
커를